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 '10. 2. 9(화) 16:30
2. 장소 : 제1회의실
3. 참석자 : 총 11명 중 평의원 7명 참석, 4명 불참
이기우 의장, 이홍우 부의장, 김성숙 평의원, 김정섭 평의원, 임성권 평의원, 이병춘 평의원, 장성규 평의원

[이기우 의장]

2010년도 예산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 기획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2010년도 예산(안)보고입니다. 2010년도 대학환경 분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환경은 고등교육의 질적향상과 국제수준, 세계적인 최고수준의 교육과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대내적으로는 2010년도 등록금 동결에 따라 대외환경에 대처해야하는 필요한 자금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학내자율화를 통해서 다양한 자율적인 수익기반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방침으로 첫 번째로 교육인프라구축, 두 번째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달성을 위한 내부역량강화로서 2012년을 기점으로 연구비 2천억 달성 및 CI논문 2천편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학생 유치 및 학부교육과정 내실화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C 융합의 시대를 선도할 국내외 프로젝트 추진방안 수립하고자 합니다. 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예산은 크게 교비와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교비는 작년에 비해서 97억 감소를 예상합니다. 지난해에는 올해처럼 등록금 동결은 같았으나 등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산학협력단은 1,304억입니다. 이것은 총 연구비,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이전수입 부분입니다. 교비예산은 줄었으나 산학협력단 예산을 확대해서 총계로 보시면 FY10년은 3.7% 증가하는 예산(안)입니다.

주요 중점 추진사업별로 총 4개 분야 7개 사업별로 총 1,802.7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는 사업목표를 연구비 수주액 2천억원, CI논문 2000편으로 세웠습니다. 기술이전 부분은 2009년도에 의과대학 성채출기세포부문에 송순욱 교수님이 상당액의 기술이전수입을 수주해서서 높게 형성되었고 일부 2010년에 반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에 19.1억원은 국내 1위, 2위를 겨루는 정도의 기술이전수입입니다.

두 번째로 파워엘리트양성 전문대학원 육성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수인재유치 및 사회취약계층 배려 장학금 13.6억원을 지원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장학금, 전용기숙사에 15.4억원을 지원합니다. 물류전문대학원은 국고에서 20억원을 지원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수학생 유치 및 취업률 제고입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가 전년에 이어 계속 진행이 되고, 취업률 75%를 목표로 우수학생 유치와 취업률 제고 장학금 등이 추진됩니다. 본교가 2008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률 5위 정도 랭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질적 수준의 경쟁력을 함께 갖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부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교과부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1.4억원을 수주 받았고, 올해 목표치로 41.4억원을 수주받으려 합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국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목표가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 실용교육 및 외국어강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제화 인프라 확대입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12.8억원 외국인교원 채용 및 장려로서 1.3억원, 국제공동연구는 8.9억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글로벌 인하비전 2020은 2020년에 세계 100위, 아시아 30위, 국내 5위에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미래성장분야 선정과 송도캠퍼스이전에 따른 발전전략 그 다음 국제화 질적 성장모델 이런 것을 필두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는데 3.3억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대학평가 수월성 제고로 현재 대학평가는 국내 중앙일보 평가, The-Times 세계대학 평가, 조선일보가 발표하는 아시아대학 순위발표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평가 목표 10위, 세계대학평가 300위권, 조선일보 아시아대학평가는 80위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등록금 수입과 지출 중 수입부분을 보시면 등록금 수입은 등록금 동결과 등록율 감소를 가정하여 14억원 줄였으며, 전입금은 233억원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지정 기부금은 66억원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하고 연구기부금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이관운영하여 교비회계에서 40억정도를 줄입니다. 국고보조금 95억원, 교육부대수입 116억원, 교육외수입 64억원, 연구기금인출 64억원, 적립금인출 80억원을 책정하여 교비 2,672억원, 산학협력단 1,304억원, 총계가 3,97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예산에 상응하여 보시면 됩니다. 기본 인건비 동결과 별도로 교원 신규 총원과 연금법 개정에 따라 일부상승이 있습니다. 병원의 인건비를 3%정도 임금인상안을 책정합니다. 대학교직원이 아닌 병원인력에 대해서만 3% 임금인상이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전년대비 19억원 감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부분적으로 축소합니다. 연구비 부분은 77억원 감소, 학생/입시경비는 7억원 감소, 교육외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고정자산매입은 132억원이고 고정부채 상환 5억원, 연구기금 적립 7억원, 적립금 적립은 목표치 89억원입니다.

등록금 의존율을 보시면 09년도 총 수익 중 등록금 의존율이 45%, 10년에는 43.1%가 됩니다. 그 다음 교비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은 62.3%에서 64.1%로 조금 상향되고, 장학금 비율 24.2%에서 24.3%, 그 중 교내장학금 비율은 동일합니다. 등록금대비 인건비 비율은 조금 점진적으로 약간 상향추세에 있습니다. 등록금이 움직이지 않고 인건비는 호봉승급이나 병원인력이 자체 상향이 좀 있고 추가교원총원이 있습니다. 63.4%였었는데 67.5%로 올랐습니다. 등록금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은 지난해보다 1% 떨어진 16%에서 15%입니다. 계약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관한 총괄과 주요사업추진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우 의장]

교수회에서 교수님들한테 등록금 동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은 한 두 분정도가 등록금동결은 불가피하다라고, 또 다른 소수의견으로는 등록금은 동결하지만 임금과 연계하지말 것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수의견으로는 등록금문제를 학교운영비 현황하고 상관없이 증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등록금문제가 당장은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인상요인이 계속 잠재해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담을 2년후, 3년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2.5% 인상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하면서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우회적으로 억제하는 상황에서 대학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에 대한 교수님들과 사전 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부 측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의견수렴절차가 아닌것 같고 그래서 일단 교수회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등록금동결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대체로 의견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평의원]

등록금 의존율을 보면 전년대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총 수입 중 등록금 의존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기획처장]

등록금의존율 부분이 45.0%에서 43.1%로 떨어집니다. 총 수입에서 교비부분은 줄고 산학 부분에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총 수입부분에서 교비는 14억 줄어들고 등록금동결과 등록 학생 편제정원수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산학이 늘어나면서 그 의존율이 약간 축소 된 것입니다. 등록금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이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숙 평의원]

산학은 전체적으로 교비 속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산학으로 들어오는 비용은 목적이나 쓰임 부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이라는것이 별도의 회계를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교비와 산학이 현재 분리되어 있고 총 수입측면에서 합산해본 것입니다.

[이기우 의장]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교비수입중 등록금의존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07년도에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산팀장]

당시에 김병국 교수님이 수주받으신 연구비 300억원에 의해 비율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62~3%정도의 교비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숙 평의원]

등록금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 상승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과 비교한 자료가 있으신지요?

[기획처장]

고려대의 경우 67%~70%정도이고, 연세대는 85%를 넘어섭니다. 한양대, 성균관대가 본교보다 조금 높은 비율입니다. 현재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이 67.5%이고, 장학금 20%비율입니다. 이 두가지만으로도 거의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장학금이나 인건비가 크게 변하기는 어려운 성격으로 등록금대비 인건비 비율 증가는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병춘 평의원]

지금 뭐 현실이 저렇게 되어있으니까 당장 바꿀수는 없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째 인상이 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등록금동결이 돼서 인상이 안됐으니까, 계속 내년까지하면 3년째 인건비가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게 아닌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평가와 관련해서 순위를 계속 높이겠다 라는 목표가 정해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을 줄이면서 순위를 높여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 또는 대책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님]

등록금 동결상태에서 추가수입원을 늘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학을 늘이는 목표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평생교육원같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익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본부의 정책 아이디어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행해주는 소정의 교수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조금 희생도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외에는 나머지 소소한 관리비를 줄이는 차원의 목표도 있습니다. 일반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가급적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사립대학이 등록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때문에 그것을 동결하는 가운데, 또 앞으로는 등록금상환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3년동안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을 올릴 수 없게 되어있어서 사실 이제 앞으로도 인상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도의 물가상승률이 2.8% 잡는데 3년을 잡아도 3.0%를 잡으면 1.5배가 4.5%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다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중지를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하나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개 학년도 동안 동결한 사항으로 정정합니다.

[이기우 의장]

우리나라의 전체로 보더라도 등록금 의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학교 본부책에서는 어차피 편리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 등록금 동결되었으니까 직원들 임금도 동결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교수님들과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이런 문제가 학생들과의 소통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성권 평의원]

적립금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요?

[기획처장]

연론상에 발표된 사항은 실제 집계시 1천억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임성권 평의원]

실제로 집계된 금액이 맞는지요?

[기획처장]

한 500억 이상은 건축기금, 특정 장학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이용은 불가능 합니다. 그 동안의 예산절감과 이런부분에서 발생한 것도 있고 외부 기부금과 특정목적으로 축적된 것도 있습니다.

[임성권 평의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부금 받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획 처장]

그래서 2009년도는 기부금 수치가 떨어집니다. 다시 조금 높여야 하겠습니다.

[예산 팀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조건의 기부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올해 모든 기부금을 다 합해도 상충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태입니다.

[기획 처장]

요약 말씀 드리면 법전의 인가서에 법전을 중심으로 학교가 소정의 기부금을 받아서 자생노력, 발전기금으로 삼겠다 했는데 사실 쉽지않은 해가 2009년이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가를 받게 될 때 불이익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교 법전 이외에 총액도 적다보니 상계조차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도 현재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기우 의장]

예산을 하면서 개별적인 항목을 가지고 따져야되는데 지금은 이게 총액에서 지금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하여튼 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보고에 따르면 인건비하고 장학금을 빼고 대학에서 가용할 수 있는것이 12%인데 그 중에 또 경상비 부분 등을 제외하면 가용자원이 도대체 몇 %입니까?

[예산 팀장]

인건비가 68%이고, 교내장학금이 20%로 총 88%입니다. 이것을 빼면 한 12%를 가지고 그 안에 실험실습비나 학생지원비, 관리운영비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통제불능변수를 줄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연구비나 관리운영비 등 위탁하는 관리업체의 최저임금대비 상승부분 등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장성규 평의원]

대학 대내환경에 보편은 학내자율화 확산에 각 대학(원)장에게 단계별 권한이양추진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단계별 이양이 되는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처장]

저희가 가진 자원이 풍성해 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것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방향은 자율성에서 와야 합니다.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돈을 벌어들이는 곳은 결국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수입원 확대에 기초를 다져 주기를 바라는 의지입니다. 산학을 증가시킬때 지금 단과대학별로 산학재원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Seed Money로서 각 단과대학들이 수입원을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행에 교수님들이 움직여 주시는 그림과 코드가 맞고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 확대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우 의장]

예. 더 이상의 의견이 없다면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9
1

“이상 제13차 대학평의원회를 폐회하다”

2010. 2. 9.

확인 : 대학평의원회 의장 이 기 우 (인)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이 홍 우 (인)

대학평의원회 의원 임 성 권 (인)

이 병 춘 (인)

김 성 속 (인)

김 정 섭 (인)

장 성 규 (인)

김 민 규 (인)

대학평의원회 간사 나 범 찬 (인)

A collection of handwritten signatures in black ink, corresponding to the names listed on the left. The signatures are written in a cursive, calligraphic style. Some signatures are enclosed in circles or other markings. There are also some yellow markings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